

## 내년도 소농직불금 120만 원→130만 원 인상 예정 강화군, 227억원 규모...기본형 공익직불금 순차 지급!



강화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순차 지급결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30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가에 순차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급 농가 9,970명, 지급 면적

10,834ha, 지급액 227억 원으로 인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85%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사업은 1천~5천㎡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외 농지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부터 '2017~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돼 작년보다 지급 규모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을 통해 물가 상승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폴 영상 24시간 강화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조명부터 방범 예방까지...강화군 등산로 입구에 스마트폴 설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고려산 미꾸지고개, 혈구산 고비고개, 해명산 전득이고개 총 3곳에 스마트폴(보안등+CCTV)을 설치한다.

최근 등산로 내 문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군은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스마트폴 구축을 계획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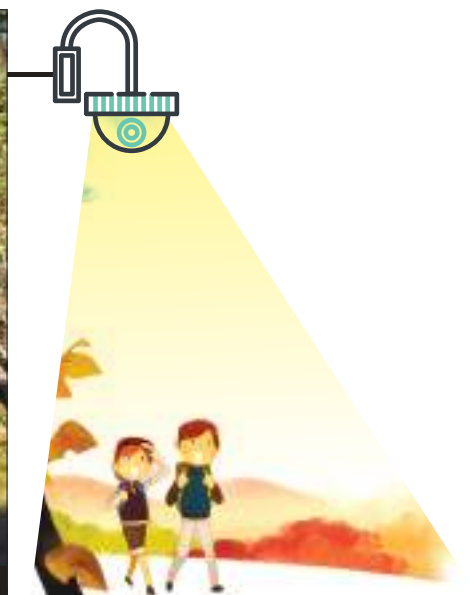
스마트폴은 CCTV와 보안등이 합쳐진 형태로, 스마트폴로 촬영된 영상은 24시간 내내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갑작스러운 사건·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폴 설치를 통해 등산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산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기자



스마트폴 설치





# 안전·복지·지역균형 등 군민행복 시책 사업 중점 편성 강화군, 2024년 본예산 6,612억원 편성



군수님 집무사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4년도 본예산 6,612억 원을 편성해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사업과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지역균형 등 군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41%(2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1.1% 증액된 2,014억 원,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1.4% 증액된 920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관련 부처 방문 등 긴밀하고 전략적인 대응 활동으로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2024년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등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 664억 원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사업 113억 원 ▲아동·영유아지원 사업 27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133억 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 13억 원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에 37억 원을 책정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 56억 원 ▲주문·불음·아차 도로확충 사업 45억 원 ▲행복마을 가꿈 사업 26억 원 ▲공공·청년일자리 및 창업활

동 사업 17억 원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원을 반영했다.

각종 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지역에 사는 것이 자긍심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하천 및 방조제 사업 224억 원 ▲공원 테마 경관조성사업 51억 원 ▲스마트 빌리지 솔루션 보급사업 16억 원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26억 원 ▲문지마 폭행 대책 보안등 설치사업에 7억 원이 투입된다.

우리군의 핵심 산업인 농·축·어업의 미래 성장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64억 원 ▲로컬푸드 빌리지 조성사업 52억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 및 부잔교 설치사업 23억 원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신축 사업 25억 원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사업 14억 원을 편성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과 강화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든든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제70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신종 범죄 사례와 예방법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마련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3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제3회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강화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출신 권일용 강사를 초청해 ‘현대사회 특성과 범죄 유형’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강화군민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이 최근 발생하는 신종 범죄의 사례를 듣고 예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번 강연을 통해 범죄 원인과 더불어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의 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예방법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강화 아카데미는 내년에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화 군민들이 힐링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명강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강화아카데미

## 강화군, 함께 만들어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 강화 전문건설협의회와 소통의 장 마련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3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강화 전문 건설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은 현재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과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 등에 관해 설명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협조를 통해 불법·부실 업체를 처분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우리 군의 건강한 건설산업 형성을 약속했다. 또한, 「강화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 공사 시에도 지역 내 건설장비 등의 사용을 요청하며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천호 군수 및 관련 부서 과장들과 강화 전문 건설협의회(회장 김종열), 임원진 등이 참석했으며 관내 건설업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건설산업과 지역경제의 동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번성을 위해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 전문건설협의회 간담회



# 강화군, 제9회 2023 올해의 SNS 최우수상 수상

## 강화의 주요 명소 소개 및 소통 통해 팔로우 1만여 명 달성



강화군 제9회 2023 올해의 SNS 최우수상 수상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4일, 2023 올해의 SNS」에서 올해의 인스타그램 기초지자체 군 부문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

「제9회 2023 올해의 SNS」는 (사)한국 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SNS 활용 성과를 평가한다.

강화군은 관광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군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 소식을 전하며 실시간 소통을 통해 팔로우 1만여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군은 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해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후기를 게시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등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상은 인스타그램 채널 개설 이후 처음 얻은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강화군 관광 SNS에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해 많은 분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불안정한 정세 속 민방위 대응 태세 확립

## 강화군, 올해 민방위 보충 교육 꼭 이수하세요!



10월 민방위보충교육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29일, 민방위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2차 민방위 보충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은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 시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응급처치 요령, 전기안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충 교육은 1~2년 차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 등을 대상으로, 최근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불안정한 정세 속 민

방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보충 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확인한 후 참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민방위 사태 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강화군, 군민이 더 안전하게...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 추진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 조감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유천호 군수, 이태산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 공모 시 제시한 건축계획 보고 및 과업 수행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강화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1,7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인데, 기하급수적인 CCTV 증설과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사업비 약 107억 원을 투입해 강화읍 관청리 170-10번지에 지상 5층 규모의 CCTV 관제실·장비실·업무시설·휴게실·재난 안전상황실이 갖춰진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을 계획한 것이다.

설계의 기본방향은 관내 방법, 재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하는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관제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군은 2024년 상반기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방법·방재 활동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이 도시 안전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 기반의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해 군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강화평화전망대 2층에 조성 강화군, DMZ 생태 자원을 VR과 AR로 생생하게!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9일, 강화평화전망대 2층에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을 조성하고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은 흐린 날에도 강너머에 있는 북한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VR 망원경을 비롯해 DMZ 생태와 강화도의 깃벌을 구현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동물과 함께 사진을 찍고 QR코드를 스캔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는 AR 포토존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DMZ 생태 자원을 스마트 기술로 체험하는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사업'의 일환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 체험존을 통해 강화평화전망대를 찾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층의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오픈



# 숙박업 및 대중목욕탕 등 150여 개소 철저한 점검 및 관리 빈대 방제 조치를 위한 공중위생업소 대상 집중점검 실시



공중위생업소 대상 빈대 집중점검 실시

최근 국내에서도 빈대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급증하면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과 대중목욕탕 등 15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12월 초까지 실시한다.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실제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침구류와 수건의 세탁 상태, 방충망 훼손 여부, 객실·욕실의 청소 관리 등을 점검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 정보집'과 '자율점검표'를 영업자에게 제공해 업장에서 빈대를 목격하거나 이용객으로부터 민원을 받으면 신속하게 방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빈대는 인체에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가려움증을 유발해 피부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빈대에게 물렸다면 먼저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전문의와 상의해 증상에 따른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강화군, 내년에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벼 종자 신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다음달 20일까지 내년도에 파종할 정부 보급종 벼 종자를 신청받는다.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 및 농업인 상담소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 20일까지는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추가 신청 기간으로 전국 잔량 종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종자는 ▲삼광 ▲참드림 ▲안평 ▲해담 ▲백옥찰 품종으로 총 5품종 142톤이다. 전량 미소독으로 공급되므로 신청 농가에서 자체 종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종자는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는 내년 1월 중 신청기관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벽하 기자

문의 ▶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 930-4153



# ‘2023년 강화군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강화군 보육 교직원 여러분!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강화군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송애순)는 강화문예회관에서 ‘2023년 강화군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내 13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60여 명과 내외빈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강화군 보육의 미래, 우리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보육의 중요성과 보육 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송애순 연합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보육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

으며, 2부에서는 보육 교직원들의 힐링을 위한 레크리에이션도 이어졌다.

송애순 강화군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하루를 한 시간처럼 지내시는 선생님과 교직원, 원장님들이 함께 화합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고 전했다.

# 2023년 지역 리더 직무(소양)교육 진행 강화군, 지역 리더 대상 직무역량 높인다!



강화군 지역리더 직무소양교육

양)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직무(소양)교육은 오전에는 북부지역, 오후에는 남부지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지난 주민자치 동아리 발표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길상면 난타 교실과 선원면 라인댄스 팀이 사전 공연을 펼쳐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광동근 강사가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의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이달용 강사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강화의 미래지향 리더쉽’을 주제로 직무(소양)교육을 진행했다.

지역 리더 직무교육은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읍·면의 지역 리더(이장·반장·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리더들께 항상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0일, 강화문예회관 1층 대강당에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지역 리더 1,6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 리더 직무(소

# 강화군, 2023년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적극행정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3일과 24일, 강화군 공무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군민이 체감 가능한 적극 및 혁신 행정 실현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문강사 초빙 교육과 군정 역점사업 현장 방문 견학을 함께 추진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경진 강사에 의해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에서 적극 및 혁신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지난 5월 개원 이후 30만 명 이상이 방문 중인 화개정원과 함상공원 운영을 시작으로 외포 종합어시장 등이 조성될 외포권역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군정 역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화군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농업인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실천 강화군, 저탄소 저투입의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



토양 정밀 검정(저투입 저탄소 농업관련)

강화군은 탄소중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잔류농약분석 ▲토양검정 분석 지원 ▲농업미생물 분양을 지속

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올해도 집중 호우와 이로 인한 산사태 및 홍수 등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기후변화는 강수량의 변동성 증가와 더 많고 강한 가뭄 및 홍수 등을 유발하여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의 증가 등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업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메탄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도 지속적인 농업의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 농법, 저메탄 사료의 개발, 농업부산물의 처리, 농업용 에너지로서의 화석연료 사용 저감, 화학농약 및 비료의 적정 사용 등 탄소 배출량을 제

로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4,000여 건의 토양성분 분석과 600여 건의 농산물 안전성분석을 하고 있으며, 연간 300톤의 농업미생물을 생산해 900농가에 5,500회 공급하고 있다.

강화군은 적절한 농약, 비료 사용을 유도하며, 농업인들과 함께 저투입의 지속 가능한 농업의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생물 농가 공급(저투입 저탄소 농업 관련)



미질검사(저투입 저탄소 농업 관련)



잔류농약정밀분석(저투입 저탄소 농업관련)

## 강화군, 농업법인 181개소 대상 법령 위반 여부 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법인세 신고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거나 농지를 소유한 관내 181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 요건 충족 여부(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기간에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통해 나눔과 사랑 실천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회장 박봉식)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지며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강혜영 여성회장을 주축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회원들이 도래미마을에서 직접 김장재료를 준비해 배추를 절이고 배춧속을 싸는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으며, 직접 담근 김치를 북한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 100가구에 전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박봉식 회장은 “김장 나눔을 통해 많은 분께 온정

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유총연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자유총연맹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강화군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는 평소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눔



사랑의 김장나눔

## 하점면,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다시 만나 반가워요~



하점면-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만남



하점면 3따3고 홍보

강화군 하점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정호)와 자매결연 도시인 과천시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0일 하점면사무소에서 만남을 가졌다.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그간 중단되었다가 진행됐으며, 두 위원회 위원 및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상의 하점면장은 강화군 특산물 및 문화재, 관광지 현황을 소개하고 특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 등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박건욱 부림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저희의 방문을 환영해 주신 하점면에 감사드리며,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의 면장은 “하점면과 부림동의 자매결연은 16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오늘 하점면을 방문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서도면, 소외계층 위해 따뜻한 사랑 보듬기



서도면 소외계층에 사랑 나눔



서도면 소외계층에 사랑 나눔

강화군 서도면(면장 이정실)이 지난 24일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위해 패딩점퍼 12벌과 김장 김치 10박스를 홀몸 어르신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정실 면장은 “해마다 겨울 한파로 추위에 떨고 있는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과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 열정과 재능으로! 2023년 제3회 강화군 청소년 페스티벌 성료



강화군 청소년 페스티벌 성료

이 참가한 예선에서 열띤 경쟁을 통해 본 공연에 진출한 노래·댄스·밴드 총 13팀이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초청 가수 비오, 비비지, 별은의 특별 무대로 축제가 더욱 화려하게 빛났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준비한 마음 토크 이벤트까지 더해져 오늘의 주인공이 청소년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소방서와 경찰서가 합동 점검을 시행했고, 참석한 관내 11개 중·고등학교 1,100명의 학생은 질서 정연한 환경 속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공연을 통해 강화군 청소년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화군 청소년이 소중한 추억을 안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30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23년 제3회 강화군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선 지난 23일, 34팀

#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교육 진행



민주평통,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회장 김경호)가 지난 29일, 덕신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재학생(1~2학년)과 교직원,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육원센터 조혜리 강사의 ‘최근 북한 변화와 우리들의 역할’을 주제로 약 60분 동안 참여형 토크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평통 인천강화군협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건전한 통일 미래세대를 육성하

기 위해 해마다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의 방향과 대북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강화군에서는 김경호 회장을 비롯해 40명의 자문위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신청기간 12월 4일 ~ 8일까지, 70명 선발

## 강화군, 2024년 겨울방학 직장체험 대학생 모집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겨울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 70명을 내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공직자와 함께 근무하며 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대학생 직장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단, 최근 4년간 강화군 대학생 직장체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이어야 하며, 수료자, 졸업생, 재적생, 사이버대, 방송통신대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로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생들은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일씩 2기로 나누어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서 민원 안내,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 보조 등 직장체험을 하게 된다.



문의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 032-930-3352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



# 사회복지 현장 경험 공모, 1회 인천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기공모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명** 제1회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기공모전 '소소한 기억의 습작'

**공모주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야기  
(예: 이용자들의 경험, 특별한 기억, 기술 이야기, 경험, 영웅이야기, 경험 등)

**공모기간** 2023. 11. 27.(월) - 12. 26.(화)

**공모자격** 인천시 관내 시설 또는 단체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제출물**  
 • 공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후 소인)  
 ※ 보조 서식: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분량: A4 2쪽 이상 3쪽 이하(글자 크기 11pt, 줄 간격 160%)

**응모방법** 이메일 제출 (1인당 1편 제한)  
 • 이메일: ykh@incheon.pass.or.kr  
 • 특정 주제에 공모한 이름과 참가자 이름을 기재 (소소한 기억의 습작, 등첨등)  
 • 수기 제목도 동일한 파일명으로 제출

**심사일정**  
 • 공모작 접수: 2023. 12. 1.(수) - 12. 26.(화)  
 • 선정작 발표: 2023. 1. 15.(월)  
 • 시상식 시상: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개원 5주년 기념식 (2024. 2. 15.)  
 ※ 선정 작품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선: 수상작 등을 중심으로 수기집 출간 예정

**시상내용**

구분	최우수	우수	입선	합계
선정수	1명	3명	3명	7명
시상금액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각 10만원

※ 공모작 중 10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프트카드(한정) 상품 10점 배부

**관련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ykh@incheon.pass.or.kr  
**홈페이지** www.incheon.pass.or.kr  
**전화** 032-721-7642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전화실 업무시간 내만

“생생한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가 담긴 수기를 기다립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1회 인천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기공모전 ‘소소(小笑)한 기억의 습작’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주관으로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11월27일~12월26일이며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은 일이라면 어떤 내용도 가능하다.

분량은 A4 용지 기준 2~3페이지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160%다. 인천사서원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ykh@incheon.pa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입선 3명 등 모두 9명에게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와 별도로

응모자 중 10명을 무작위로 뽑아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 또 응모작을 모아 수기집으로 제작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내년 1월 중순 개별로 통보하고 기관 홈페이지(incheon.pass.or.kr)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내년 2월15일 열리는 인천사서원 개원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한다.

문의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 032-721-7642  
 인천사서원 홈페이지에서 참고

## 건강드림카! 어르신 병원, 관공서 이동 지원, 올해만 200여 명 이용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강화종합재가센터 건강드림카 효자 노릇 톡톡

강화종합재가센터 건강드림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 강화종합재가센터는 ‘건강드림카’ 사업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드림카는 혼자 살거나 동거인이 있어도 장애나 고령, 질병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대상이다. 올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까지 확대했다. 차량으로 지역 내 병원이나 관공서, 버스정류장 등 필요한 장소까지 모셔다드린다. 한 번에 3시간, 일 년에 12번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는 연간 6회까지 가능했다. 1~2주일 전 예약해야 원하는 시간을 잡을 수 있다.

지난 10월까지 올해만 230여 명이 368회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으니 하루에 1.5회 이상

달린 셈이다. 강화군은 지역이 넓은 데 반해 대중교통은 인천 시내만큼 촘촘하지 않다. 드림카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다.

불은면에 사는 정성두(89), 이행자(82) 부부는 드림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몇 해 전 연달아 부부가 모두 큰 수술을 한 탓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인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오가는 버스는 1대뿐이다. 배차 간격은 2시간~2시간30분인데다 자가용으로 15분 거리를 버스로는 45분을 달려야 한다.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날에는 하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만 했다.

홀로 사는 이도순(90) 씨 역시 드림카가 자식들을 대신한다. 아흔을 넘기니 안 아픈 곳이 없지만 아플 때마다 멀리 사는 자식들을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읍내 병

원으로 나갔다. 하지만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었다. 그러다 생활지원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드림카를 알게 됐다.

드림카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정해져 있으나 시작은 그보다 이르다. 터미널에서 첫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니산이 있는 화도면, 교동도, 석모도까지 이동해야 해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하는 때도 있다.

이재인 강화종합재가센터장은 “강화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드림카는 꼭 필요한

서비스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부터 나선다. 이 서비스는 공공돌봄 기관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재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 기고

이경수

## 별대총 그리고 진과 보



광성보 안हरु

## 오매불망 강화도

대가가 새벽에 산성을 출발하여 강도로 향하려 하였다. 이때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서 산길이 얼어붙어 미끄러워 말이 발을 디디지 못하였으므로, 상이 말에서 내려 걸었다. 그러나 끝내 도착할 수 없을 것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성으로 되돌아왔다. 《인조실록》

1636년(인조 14) 12월 15일의 상황입니다. ‘산성’은 어느 산성일까요? 남한산성입니다. 병자호란 때 얘기입니다. 전날인 12월 14일에 인조와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인조가 몰래 성을 나와 강화로 향했던 겁니다.

하지만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포기하고 남한산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료에는 “15일에 임금이 걸어서 가시다가 여러 번 넘어지셔서 옥체가 불편하여 도로 성에 드시었다.”라고 나옵니다. 참 딱한 노릇입니다.

인조는 정말 강화로 가고 싶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정묘호란 때처럼 이번에도 강화는 안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만큼은 절대로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화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산성에 청천벽력이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조와 조정은 성을 나와 삼전도에 가서 항복 의식을 치릅니다. 이를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김상용 선생 등과 함께 강화에 들어와 있었던 봉림대군은 강화가 무너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

습니다. 강화에서 삼전도로 끌려갔고 조선의 인질이 되어 청나라까지 끌려갑니다. 몇 년 뒤에 겨우 귀국해서 임금이 됩니다. 그이가 바로 효종(재위:1649~1659)이지요.

효종은 군사력을 키우며 북벌(北伐)을 준비합니다. 청나라를 쳐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효종은 강화와 인연이 꽤 깊은 인물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전설이 전해 옵니다. 가지가 워낙 복잡하게 퍼져서 원형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 별대총 이야기

효종이 북벌의 칼을 갈며 전국적으로 명마를 구할 때였습니다. 강화도 진강산 바위에서 태어난 용마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화유수가 그 말을 효종에게 바쳤습니다. 말을 본 효종이 크게 기뻐하며 별대총(伐大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총(驄)’은 말[馬]이라는 뜻이에요.

효종은 북벌을 이루라는 하늘의 선물로 여기며 별대총을 아꼈습니다. 별대총은 그야말로 명마였습니다. 염하를 헤엄쳐 건너는 등 만화 같은 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대총이 병들어 누웠습니다. 백방으로 손을 썼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낙담한 효종은 별대총이 죽었다는 소리만큼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누구든 별대총이 죽었다는 소리를 하면, 내가 목을 베리라!” 명했습니다.

모두가 별대총이 일어나기를 고대했으나 죽고 말

았습니다. 누구도 임금에게 고하지 못한 채 사흘이 흘렀습니다. 죽었다고 말하면 목을 벤다는 데 어찌 말하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나서서 효종에게 말합니다.

“황공하오나 별대총이 일어나지 못한지가 사흘입니다.”

“별대총이 어찌 되었다는 소리냐?”

“별대총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사흘이옵니다.”

“그래서?”

“별대총이 숨 쉬지 못한 지 사흘이옵니다.”

“뭐라? 그러면 별대총이 죽었다는 소리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결국, 별대총이 죽었다는 소리를 효종 스스로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별대총의 죽음은 북벌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한편, 별대총과 관련한 속담도 전해집니다. “양천 현감 죽은 말 지키듯 한다.”라고도 하고 “양천 원님 죽은 말 지키듯 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태우는 상태를 의미하는 속담이라고 해요. 감잡으셨지요? 그렇습니다. 별대총이 죽은 곳이 바로 양천현이었다고 합니다.

## 12전·보

효종은 북벌을 준비하면서 강화도 방어시설 구축에 골몰합니다. 강화도는 비상시 최후의 방어기지가 되는 곳입니다. 비록 병자호란 때 청군에게 함락되기는 했으나 효종은 여전히, 방어에 유리한 강화도의 자연조건을 신뢰했습니다. 청군에게 함락됐던 것은





정족진 터



월곶진 터

지키는 이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효종이 강화도 방비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강화유수부가 바닷가에서 꽤 먼 곳에 있다. 바다에 갑자기 변고가 생기면 유수부에서 무기를 급히 옮겨와야 하는데 그게 여의찮다. 병자호란 때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다. 물가에 보를 설치하면 각 보의 변장(邊將)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외적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강화도 연안에 보를 설치하려고 한다.”**

1655년(효종 6) 어느 날 효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강화도 해안에 보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진’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에 진·보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12진·보’가 모두 효종 때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효종 때 세워진 진·보는 월곶진, 제물진, 초지진, 용진진, 인화보, 승천보, 화도보, 광성보, 이렇게 여덟입니다. 제일 먼저 설치된 월곶진·제물진·초지진은 강화 본섬에서 창설한 부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부대입니다. 월곶진은 교동에서, 제물진은 인천에서, 초지진은 안산에서 옮겨왔습니다.

강화의 해안 경계 부대인 진·보는 역할이 같습니다. 지휘자의 지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鎭)은 첨사(宗3품)나 만호(宗4품)가 책임자이고, 보(堡)는 대개 별장(宗9품)이 지휘자입니다. 진·보의 첨사·만호·별장을 진장(鎭將) 또는 변장(邊將)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진’, ‘보’ 명칭이 내내 고정됐던 것이 아닙니다. 진이었다가 보가 되기도 하고, 보가 진이 되

기도 합니다. 진과 보를 통틀어 진으로 표기한 사례도 사료에 흔하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진 7보’, 그러니까 ‘12진·보’는 이렇습니다.

월곶진(月串鎭), 제물진(濟物鎭), 용진진(龍津鎭), 덕진진(德津鎭), 초지진(草芝鎭), 광성보(廣城堡), 선두보(船頭堡), 장곶보(長串堡), 정포보(井浦堡), 인화보(寅火堡), 철곶보(鐵串堡), 승천보(昇天堡).

효종 때 설립된 진·보 8곳 중에 ‘12진·보’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화도보가 없어졌습니다. 1656년(효종 7)에 선원면에 설치됐던 화도보가 중간에 폐지되고요, 대신 1710년(숙종 36)에 길상면에 선두보가 세워집니다. 선두보는 병인양요(1866) 때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록 등 사료를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13진·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13진·보’는 ‘12진·보’에 문수진을 포함한 것입니다. 문수진은 김포 문수산성 안에 설치한 진(鎭)입니다. 강화를 지키려고 문수산성을 쌓았듯, 문수진 역시 강화를 지킬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강화유수가 문수진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3진·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강화도 안에 있었던 것만 따져서 ‘12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정족진의 등장

병인양요(1866) 정족산성 전투에서 극적인 승리는 거둔 양헌수 장군이 조정에 승전 보고를 올렸습

니다.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종실록》에서 옮깁니다.

**“전투에서 전사한 자는 포수인 양근 사람 윤흥길입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선두보 별장 김성표와 포수인 흥천 사람 이방원, 춘천 사람 이장성인데 모두 사생(死生)의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군의 주력이 민간인 포수임을 짐작할 수 있네요. 그런데 부상자 중에 선두보 별장이 있습니다. 당시 선두보는 정족산성 서문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선두보 별장 김성표도 소속 병사들을 이끌고 정족산성 전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방금 진무사 이장렴의 장계를 보니 ‘본영 소속 선두보 별장을 삼가 의정부의 복계에 의거하여 정족산성 별장으로 옮겨 두고...’, 하였습니다. 정족산성은 험한 요충지인데 선두보를 폐지하고 별장을 옮겨 둔 것은 바로 관방(關防)을 중하게 하고 관제(官制)를 보존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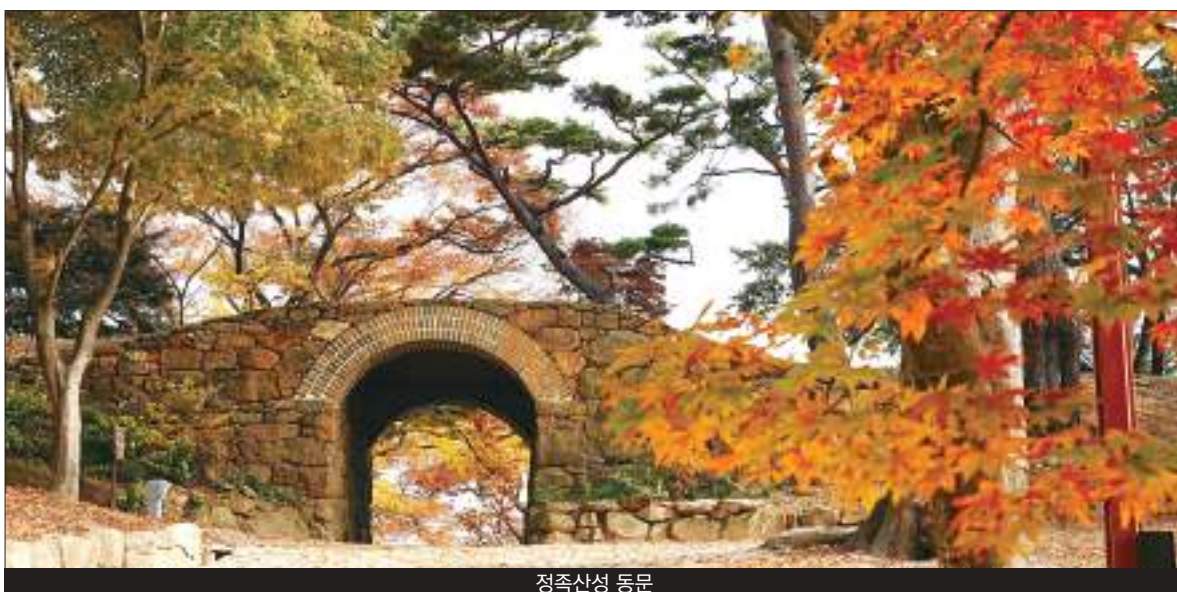
병조에서 고종에게 아뢰는 내용인데 《승정원일기》(1866.12.13.)에 실렸습니다. 화도보를 폐지하고 선두보를 설립했듯이 선두보를 폐지하고 정족산성 진(정족진)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조선 조정은 정족산성(삼랑성)을 무시했습니다. 쓸모없는 옛 산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병인양요를 겪으며 비로소 이 산성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산성 안에 전등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史庫)도 있습니다. 각종 창고도 있습니다. 산성을 지킬 병력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새로운 부대 창설이 부담스럽기에, 선두보를 옮겨 정족진으로 삼은 것입니다. 정족진은 전등사 명부전 맞은편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고려 가궐터로 알려졌던 곳과 겹칩니다. 2009년에 정족진 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처음부터 5진·7보, 12진·보가 아니었다. 효종 때 처음 설치되고 숙종 이후쯤에 12진·보 체제가 성립된다. 진과 보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늘 5진·7보였던 것이 아니다. 화도보가 선두보가 되고 다시 선두보는 정족진이 되었다. 조선 후기 당시에는 문수진을 포함해서 ‘13진·보’로 칭했었다.



정족산성 동문



## 칼럼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수차례 응징해 안두희의 '천적'으로 불렸던 권중희를 처음 본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권중희는 1970년대 말 이화여대 앞 로터리에서 조그만 기원을 운영했다. 바둑에 한창 재미를 붙일 때라 기원을 더러 찾았는데 그는 조용하고 평범한 40대였다. 때문에 권중희가 1992년 안두희를 폭행한 뒤 경찰에 잡혔을 때 '기원 아저씨'를 떠올리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리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그는 취재차 찾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속이 타니 담배 좀 달라"고 말했다. 그의 인생 전환은 '안두희가 미국으로의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데서 비롯됐다. 어릴 적 '백범일지'를 읽은 뒤 김구를 흠모하기는 했지만, 성장해선 먹고살기도 힘든 판이어서 김구 암살에 관한 진상규명은 '거창한' 사람들이나 국가기관이 해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자 1983년 돌연 기원을 그만두고 홀로 안두희 추적·응징에 나섰다. 13년에 걸친 '추적자'의 여정을 이렇게 시작했다. 민족지도자를 시해했음에도 곧바로 사면받고 군납품업체를 운영해 큰돈을 번 뒤 군 사단장의 부임 인사를 받을 정도로 교만하게 살아온 안두희에게 비로소 '입자'가 등장한 것이다.

권중희는 계속 거처를 옮기는 안두희를 귀신같이 찾아내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마침내 1992년 9월 23일 안두희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김구를 살해하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김구 피살 당시 향간에 떠돌던 이승만 개입설을 안두희가 인정한 최초의 증언이었다. 이전까지 안두희는 "김구 암살은 개인 소신에 의한 것으로 배후는 전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권중희가 안두희에게 받아낸 진술은 다음과 같다.

〈1949년 6월 20일(김구 암살 6일 전) 부대 안에 있는데 장은산 포병사령관이 불렀다. 사령관실에 가 보니 육군본부에서 나온 대위가 있었는데, 장은산은 계급이 훨씬 높은데도 그에게 굽실거렸다. 그는 채병덕 육군 참모총장의 연락장교라고 했다. 장은산은 나를 보자마자 "총장 각하께서 부르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연락장교가 타고온 지프차에 동승해 삼각지에 있는 육군본부 참모총장실로 갔더니 채병덕 총장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함께 있었다. 신 장관

## 의인(義人)에 대한 기억

은 나를 보더니 "자네가 포병 사격대회에서 관측장교상을 받은 안두희 소위지"라고 했다. 그 뒤 채 총장과 신 장관이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불쑥 경무대 얘기를 꺼냈다.

채병덕이 "경무대 구경이나 갈까 한다"고 하자 신성모는 "마침 나도 보고할 게 있는데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그러고는 나에게도 같이 갈 것을 권했다. 그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내가 능히 감지할 정도였다. (안두희를 경무대에 데려가기로 맞춰놓고 안두희 앞에서는 우연히 경무대 얘기가 나온 것처럼 각본을 짜놓았다는 의미)

경무대에 도착하니 미리 연락해 두었는지 비서가 맞이했으며 곧바로 대통령 접견실로 안내됐다. 신 장관이 "각하, 포병 사격대회에서 상을 받은 안두희 소위입니다"라고 소개하니 이승만 대통령은 내 손을 잡으며 "장관으로부터 자네 얘기 많이 들었다"며 정겹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뜬금없이 진중한 투로 "높은 사람이 시키는대로 말 잘 들어라"고 말했다. 나에게 '높은 사람'이란 지휘계통인 장은산 포병사령관, 채병덕 참모총장 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에도 대통령으로부터 김구 제거를 의미하는 듯한 말을 2~3차례 들은 뒤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경무대에서 나오니 퇴근 무렵이었다. 다시 부대로 가서 장은산 사령관에게 보고했더니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거봐 내 말이 맞지"라고 했다.

장은산은 이전에 나에게 김구 암살을 지시했으나 내가 막상 결행을 못하자 "배후에 거물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여러 차례 회유한 적이 있다. 결국 "거봐 내 말이 맞지"라는 장은산의 말은 "내 말대로 거물이 있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이 일개 소위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경무대에 다녀온 뒤 김구를 암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

안두희의 육성 녹음(8시간 분량)이 동반된 이 증언은 김구 암살사를 다시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공인받지 못했다. 안두희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권중희의 폭행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번복했기 때문이다. 권중희는 폭행 한 것을 시인해 옥살이를 했다.

권중희는 1995년 기자에게 위의 안두희 진술 내용을 전해주면서 "내가 진술을 받을 당시 안두희를 때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두희는 한번 말문이 터지자 묻지도 않은 말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했다"면서 "특히 경무대 접견실 배치도와 접대받은 음료 등 안두희가 경무대에 갔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대목은 실제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 권중희의 침언= 안두희가 접견 당시 주스를 마셨다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느냐"고 했더니 안두희는 "그때 커피가 유행했고 나도 커피를 좋아했는데 주스가 나와 기억한다"고 말했다.

안두희는 결국 1996년 10월 자택(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권중희를 추종하는 박기서(부천에서 개인택시 운영)에 의해 몽둥이로 살해됐다. 안두희의 빈소에는 단 한 명의 조문객도 없었다. 그의 후처인 김모씨만이 검시 때 잠깐 모습을 비쳤을 뿐이다. 권중희는 뜻밖에도 안두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안두희에게 보약을 먹여서라도 오래 살게 해 역사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권중희는 안두희가 죽은 뒤에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안두희를 추적하는 동안 '궁핍'이라는 또 다른 천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두희 추적에 집착했기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그릇 행상을 하며 살림에 보탬이 되었던 부인마저 다단계 사기를 당했다.

권중희는 친척 소유의 농장(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우리를 개조해 만든 단칸방에서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지내다 2007년 11월 세상을 떠났다(향년 71세, 본관 안동). 타계하기 3년 전 서울신문사를 찾았을 때 기자가 차비나 하라며 5만원을 건넸더니 "늘 이렇게 남에게 신세를 끼치니..."라며 수줍어하던 것이 마지막 모습이였다.

세상에는 권중희를 돈키호테나 테러범 줌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자는 그를 '의인(義人)'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관되게 김구 암살 규명에 진력함으로써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증언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역사에 남을 죄를 짓고도 교만하게 살아온 안두희에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괴롭구나"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깨우쳐 준 사람이다.

권중희는 죽기 전 기자에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설치됐는데 왜 김구 암살 규명에는 무관심한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진보정권은 성역 없이 과거사를 규명한다는 이유로 사소한 과거사까지 끄집어냈지만 김구 암살에 대한 진상규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권중희로부터 들은 증언을 공개하는 것은 김구 암살 배후에 대한 진상규명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아울러 진상규명에 참고가 될 수도 있는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다.



칼럼

# 중앙마트 사태는 도증주인(盜憎主人)과 다르지 않다



신 봉 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2023년, 한 해의 따듯하고 행복해야 할 마무리를 앞두고 강화군은 일련의 논란으로 들쭉이고 있다.

11월 16일, 중앙마트 상인회가 군민을 상대로 강화군이 횡포를 자행한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17일 일간지에 광고

를 게재한 것에 대해 강화군은 11월 20일 오전 11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직 군수 때는 군수의 배려로 군의 땅을 사용하게 해주었지만, 현 군수 때는 임대기간이 끝났다며 우여곡절 끝에 땅을 반납했다는 문자내용에 대해 이는 이미 전후면 출입구가 있는 상태에서 중앙시장 내력벽을 행정관서의 허락없이 임의 철거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한 결과로 소송까지 이어지다 강화군이 승소하며 당시의 담당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으며 사용허가 재연장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임에도 강화군의 횡포라며 본질을 흐리게 하는 문자를 발송해 여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압력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강화군은 중앙마트에 있는 기존 출입로는 건축법과 공유재산법, 국토법 등을 위반했음에도 3년간의 소송을 거치며 불법적인 점유를 지속했으며, 패소이후 만든 새 출입구 또한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강행하며 균유지마저 무단 점유한 이 사태가 중앙마트 논란의 진실임을 밝히며 불법을 자행한 쪽은 중앙마트 측임에도 강화군이 정치적인 이유로 소상공인을 괴롭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으로 정해진 일에 군이 봐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기에 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무원은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무이지 회유하고 협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마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이미 마트 측과 여러 차례 상담하는 자리를 가진 일로 원상회복 등 시정 조치가 우선이라 설명했으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마트 측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 군민들을 선동하는 언론의 개입을 자제하기를 요청했다.

논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11월 17일에 '강화군청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조선일보 광고가 실렸다. 강화군이 3m<sup>2</sup>의 균유지를 침범했다고 펜스로 마트 출입구를 봉쇄해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 땅을 대부해주든, 매입하게하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원상회복 조치만 강요하고 있으며 괴

롭히는 것은 정치적 이유때문이라는 내용의 광고이다. 단지 텍스트만 놓고 보면 강화군이 중앙마트의 진입로를 막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횡포를 휘두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객관적이며 어떠한 사심도 섞이지 않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채 광고를 대하는 중립적 입장으로 광고를 찬찬히 살펴보자.

첫 번째, '3m<sup>2</sup>의 균유지를 침범했다'란 부분은 마트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을 시인하면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함은 본말이 전도된 경우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

두 번째, 이러한 불법을 시인하면서 매입이든 대부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원상회복 조치만 강요하며 괴롭힌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공공 공지는 이러한 매각, 대부가 불가능한 일이다. 강화군에 불법에 동참해달라는 광고일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중앙마트 문제는 소송까지 가서 3년간의 법적 다툼을 통해 대법원에서는 마트의 전후 출입문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임에도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 균유지를 침범한 중앙마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강화군의 손을 들어주며 끝난 얘기다. 그렇다면 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중앙마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불법을 시인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더해 강화군에 불법을 부추기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군의 정당한 행정절차를 횡포라고 우기는 것이며 중앙마트가 주장하는 내용중 진입로를 막음으로서 20%정도의 매출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불법을 통해 20%의 추가수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옛말에 도증주인(盜憎主人)이란 말이 있다. 이 고사는 도둑은 자기를 제지하여 재물을 얻지 못하게 하는 주인을 미워한다는 뜻으로 옳고 그름이 아닌 자기 형편에 맞지 않으면 이를 싫어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일련의 중앙마트 사태에 딱 떨어지는 말이 아닐까 싶다. 군은 법과 규칙을 기반으로 군민을 위해 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일 것인데 자신들의 불법을 용납하길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시시비비의 형평성에 큰 균열을 가져올 사례를 남기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군에 불법을 부추기며 군민에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논란의 여지도 되지않는 생떼에 불과한 적반하장격의 이 사태에 강화의 연말에 부는 찬 바람이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 [ 중앙마트 사태 발생 경과 ]

- 2015년 5월 : 중앙마트 인수 후 영업시작
  - \* 중앙마트는 현 소유주가 인수하기 이전부터 영업/시장 후면 지하 출입구 이용
- 2015년 10월 15일 ~ 2020년 10월 14일 : 경제교통과 공유재산 사용허가(1차)
  - \* 수허가자 : 000, 지번 : 신문리 190-2 (27m<sup>2</sup>), 용도 : 마트 진입로
- 2015년 10월 26일 ~ 2016년 10월 14일 :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허가
  - \* 지번 : 신문리 190-2(대)/205-5(대), 허가면적 : 29m<sup>2</sup>, 허가목적 : 진입로 / 준공절차 미이행
- 2021년 4월 9일 : 공유재산 사용허가 불가 통보(경제교통과)
  - \* 공공공지 및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2021년 3월 2일 :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경제교통과)
  - \* 강화군은 2020년 11월 23일, 2020년 12월 30일, 2021년 1월 14일 등 3차례에 걸쳐 중앙마트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2021년 4월 2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 처분 시행
- 2021년 7월 : 토지사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소송 제가(중앙마트 → 강화군)
- 2022년 1월 : 토지사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강화군 승소)
- 2022년 1월 : 토지사용허가 불허처분취소 소송 2심 판결(강화군 승소)
- 2023년 4월 : 대법원 확정 판결(강화군 승소)
- 2023년 9월 : 새로운 마트 진입로 개설 (중앙마트)
  - \* 공유재산 무단점유(3m<sup>2</sup>),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2015년 이후 내력법 건축법 위반
- 2023년 9월 18일 : 블라드 훼손 수리 군민신문고(제안)
  - \* 중앙마트 납품차량이 블라드 훼손(상가입주자 신고) → (도로과) 블라드 재설치 등 추가 설치
- 2023년 9~11월 : 블라드 및 펜스 설치 (재무과/도로과)





**릴레이 이웃사랑 성금기탁**

**송해면, 송해교회 저소득층에 라면 70박스 전달**

강화군 송해면 관내 송해교회(목사 홍기용)가 지난 21일 송해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70박스를 기탁했다.

이는 송해교회 교인들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은 것으로 생활지원사들을 통해 저소득 노인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기용 목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진 송해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온정의 손길이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려움과 복지 욕구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라면기탁(송해교회)

**양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이웃식당' 운영**



찾아가는 이웃식당 사진



찾아가는 이웃식당 사진

강화군 양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규숙, 공동위원장 이지영 양사면장)가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3주간 '찾아가는 이웃식당'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8명이 각리 경로당을 방문해 250여 홀몸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며 직접 만든 떡국과 국수, 반찬, 떡, 과일을 대접한다.

철산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입맛이 없었는데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다."면서 "다들 나이가 들어 경로당에서도 밥을 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점심을 대접해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이규숙 위원장은 "겨울철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을 드리고자 우리 위원들과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었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영 양사면장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살기 좋은 양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 카페 '우트우트', 친환경 동반성장 카페 현판 전달식 열려

발달장애인지업재활시설 우리마을(총괄원장 원순철신부, 이하 우리마을)은 2023년 11월 23일 카페 우트우트(인천시 강화군 소재)에서 친환경 동반성장 카페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친환경 동반성장 카페는 커피를 만들고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커피박)를 재활용하여 우리마을의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꾸준히 판매하는 카페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현판 전달식은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커피박제품 판매로 발달장애인 자립에 도움을 준 카페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열리게 되었다.

카페 우트우트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비롯한 음료, 베이커리와 함께 우리마을의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커피박연필을 판매하고 있다. 카페 우트우트 관계자는 “매주 수거해가는 커피찌꺼기로 만들어진 커피박연필을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우리마을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커피 문화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카페가 되겠다.”고 전했다.

우리마을 총괄원장 원순철 신부는 “같은 길 상면에 위치한 우트우트가 2023년부터 우리마을의 발달장애인 생산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판매에 동참해주시면서 우리마을과 함께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수호해 주신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마을은 2000년 3월에 개원한 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로,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가 학교 졸업 후 일할 곳이 필요한 발달장애 성인을 위해 설립했다. 대한성공회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1974년부터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베드로학교, 발달장애 영유아를 위한 희망학교,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일터 우리마을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근로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정년퇴직 이후의 안락한 삶을 위한 ‘발달장애인 전문시설(시문의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인천강화경찰서, '1,50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농협 직원 감사장 수여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는 17일 1,5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강화군지부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1월 10일, 50대 여성 고객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NH농협은행 강화군지부를 방문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께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을 직감 후 112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 후 신속히 계좌지급 정지하였고, '시티즌코난' 어플 활용하여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한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남규희 인천강화경찰서장은 “빠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장을 전달하였고, “저금리 대출 등을 표방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지속되는 만큼, 의심사례 시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2023  
Im, Tae Kyung  
Musical  
Gala Concert  
with Muse

2023  
**임태경**  
뮤지컬 갈라 콘서트  
with 뮤즈

12.5.(화) 오후 6시 30분  
강화문예회관

※ 오후 5시 30분부터 입장 가능

강화군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 032)934-7778 / 010-6608-7778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http://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